

전 세계에서 일주일 내에 코로나가 가장 빠른 확산세를 보인 나라 중에서 파라과이를 1위로.

보건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일주일 내에 코로나가 가장 빠른 확산세를 보인 나라 중에서 파라과이를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라과이에서는 누가 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300~700명 사이로 나오는 데다가 경로 불명 확진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에만 약 626 건의 새로운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제까지 총 17105명이 감염되었고 308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는 환자를 치료할 만한 중환자 실이나 인공 호흡기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3단계까지 완화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평일엔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기초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다시 통행이 금지되는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1:223으로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따꿈부 교도소에서 지난주 재소자 100여명이 확진되었고 나머지 전국 17개 교도소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구금자를 받지 못하고 있고 범죄를 저질러도 유치장에 자리가 없어 방치된 상황이라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메리칸 미션 스쿨 지난 5월 대통령령으로 학교 수업은 이번 년도는 비대면 수업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들이 휴대폰으로 과습이라는 기능으로 단톡방을 만들어 동영상과 사진으로 과제를 내주고 점검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교사들이 출근하여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가지고 오는 숙제를 점검하는 형태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으로는 아이들의 학습 열도 떨어지고 효과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여 많은 염려가 된다 특히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매일 과습 기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 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뿌리멜 아물 교회 및 3개 지교회--저희 센터 교회 및 특히 3곳의 지교회가 있는 곳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열악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실업률이 높다보니 거의 일이 없는 상황이고 기초 생활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라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50가정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배분하고 지난 8월에는 다시 500여가정에게 식량을 배분했지만 배고픈 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할수 있다면 매달 혹은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때까지 이들의 물질적인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팬데믹 기간이 지난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접촉이 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1.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어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이어지도록
- 2.센트교회와 3곳 지교회 성도와 학교 어린이와 부모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 3.코로나 바이러스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구호 식량으로 도울수 있도록
- 4.파라과이의 경제 회복과 사역지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 5.목회자 세미나에 속해있는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 6.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도록
- 7.팬데믹 이후의 사역을 위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파라과이 김정훈남영자 선교사

파라과이김정훈 남영자선교사



TWITTER.COM
SNI - Secretaría Nacional de Inteligencia on Twitter
"La "Compañía de manejo de Cadáveres" conforma..."



은혜한인교회

2020년 9월 13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시에라리온도 지난 4월부터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약 2,035명의 환자와 71명의 사상자를 내고..

샬롬!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주변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께 더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기도와 간절함으로 올려 드리시길 기도합니다. 이 곳 시에라리온도 지난 4월부터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약 2,035명의 환자와 71명의 사상자를 내고 지금도 온 나라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에볼라로 인해 방역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 듯합니다. 미리 국경과 항공기를 통제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허가제로 감시하며 성공적인 방어로 3주전부터 모든 모임을 허가하는 일반 생활 체제로 돌아왔습니다. 방역 결과는 성공적이지만 주민들의 삶은 매우 고달프고 어려워져 특히 젊은층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해 한 때 치안도 불안했지만 지금은 매우 안정된 상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지난 8월초 한국의 한 교회와 NGO협력으로 2차 무료 의약품과 학용품 등 약 15억 상당의 후원품을 시에라리온 정부에 지원하여 대통령의 지시하에 중앙 병원과 지방 병원등에 조달되어 이들의 열악한 의료 체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은 진행되어 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통령과의 면담 후 종합학교 건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 고, 기술학교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통해 "언더우드 동산"을 세울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참, 그리고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삶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신뢰와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현재의 현실이 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크리스찬 삶에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두 강건하세요!

시에라리온 김성림김현란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6월부터는 예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저는현재 중국 천진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지 한인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처음길림성 장춘으로 들어와 현지 한인교회를 섬기던 중 GMS 출신인 담임샘께서 현지인 대상으로하는 신학교 사역에 동참하였고 그 결과로 인하여 공간의 추적을 당하여 현지교회가 폐쇄되었고현재는 미얀마로 가셨습니다 장춘의 S 교회 폐쇄 후 거처가 막막하여 청년시절 잠시 머물렀던 산둥성 청도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청년부 담당샘이셨던 목회자가 개척을 하여 그곳의 교회를 도와 물려받기로 했으나 현지 교회의 사정이 나빠져 계획이 무산되었고 다른 두 곳의 개척교회를 더 섬겼으나 그곳도 현지의 감시와 재정 문제로 청도의 한국 국제학교에 교육과 영어수업을 하는 조건으로 들어갔으나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위해의 기독교 국제학교에 스카우트되어 그곳에서 1년을 섬기고 다시 천진의 한 한인교회에서 사역제이가 들어와 2019년 9월 현지 한인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최근까지 그곳에서 사역하였으나 현지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왼쪽 팔 두 군데가 골절을 당하는 중형사고가 일어나 현지 병원이 좋지 않다는 담임샘의 의견을 받아들여 Covid 19 이 한참 진행중일때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 치료를 받던 중 Covid 19로 인해 국경에 폐쇄되어 다시 복귀하지 못했고 최근 장하성 중국 대사가 중국과 협의하여 다시 유학생과 기업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합의하여 최근 다시 중국 비자를 받고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중국으로 파송되었 으며 중국에 나와있는 탈북자들을 만나고 접촉하였으나 이미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 현지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려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으로 간 탈북민들은 대부분 탈북자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들이 일선에서 한국으로 탈북민들을 인도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북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곳은 언제든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연변과 단동의 상황을 통해 현재 북한의 사정을 좀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전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뉴스가 전해지 면서 북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고 기뻐했으나 그것이 오보 였고 현재 북한은 김여정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 된 것으로 보아 백두혈통의 유지에 한계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머지않아 북한에 급변이나 어떠한 소요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인 목회에 적을 두고 좀 더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처럼 교회가 자유롭지 못한 이곳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세계선교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1) 조속히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려 들어가 선교할 수 있도록
- 2) 함께 마지막 세계 선교 사역을 완성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시기를
- 3) 9월에 한인교회 개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터키 최지섭 이해영선교사-지난 금요일 조직검사 결과 왼쪽 엉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앞 전 검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니 저희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 일정을 어떻게 할지 어려운 상황이며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2. 한국의 황OO 교회 최O 선교사--9월 21일에 간이식 수술을 합니다. 사역하는내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드님이 간을 잘라주시로 해서 수술을 하실수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팔 이예신 선교사--몇 일 입원하여 다시 항암을 시작하자고 하네요 많이 두렵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니 큰 힘이 되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카잔에서 1시간 떨어진 강가로 나가 예배도 드리고 세례식을 했어요.

오늘 저희는 카잔에서 1시간 떨어진 강가로 나가 예배도 드리고 세례식을 했어요. 한분은 거의 저희와 만난지 거의 10년되었고 바침이란 대학생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인데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형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Covid -19로부터의 건강은 다 나았습니다. 기도해주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타타르스탄 주선민, 손소미아선교사



알바니아는 총리의 Facebook 영상을 통한 한 마디로 하루 아침에 나라 전체가 닫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님들께 알바니아에서 주님이 주신 살롬의 인사를 오늘도 전합니다. 알바니아는 총리의 Facebook 영상을 통한 한 마디로 하루 아침에 나라 전체가 닫히고 모든 이동이 사실상 통제됩니다. 마치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와 뭐가 다를까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게 했습니다. ^^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3월부터 닫혔던 모든 일이 여느 유럽 국가들처럼 국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지면서 5월 중순부터 격리 기간을 해제하고 어쩔 수 없는 국민적 경제 회복이라는 요구에 발 맞춰서 6월부터는 예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적 경제 파탄으로 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스크 쓴 사람들을 거리에서 찾기 힘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는 알바니아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어낸 음모(Plandemic)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과 외국인들만 혹시나 모를 감염을 대비해 겨우 덴탈 마스크라 불리는 정도로 자신을 겨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정적으로 통제 되던 확진자 수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급속히 올라가더니 지금은 유럽의 제 2차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검사를 모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도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믿을 수도 없어 하루에 15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검사가 되지 않은 인원들과 무증상 감염자들까지 생각하면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해야 할 시기로 생각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알바니아를 위해 크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개신교협의회 대표자들(VUSh)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교회 예배 재개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배를 재개하되 12세 이상 60세 이하만 예배에 참석하고 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도 준비한 상태에서의 실내 예배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주말 이동 통제가 완전히 해제되어서 준비를 마치고 예배를 다시 예배 공간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버스가 운행이 재개되고는 있지만 예배를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찬양 시간도 단축되고 예전같지는 않지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9월 1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어떻게 개학을 할지 예상은 되지만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저희를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저희에게 맡긴 이 영혼들에게 말기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와 이제 2년을 함께 교회 개척에 동역한 알바니아 현지 CCC 교회 개척팀에게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나누고 책망과 인내를 통해 보낸 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종들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앞으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여러분들을 향한 더욱 그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길 기도하며 그리운 마음을 전합니다. ^^ 사랑합니다! ^^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오판석 정미라 (시온/시몬)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갈수 있도록.
2.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통역하는데 알바니아어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3. 주님의 약속대로 세례요한과 같은 형제와 사마리아 여인같은 자매를 만나도록
4. 티라나 City Church 를 주님께서 주인되시는 교회로 세워갈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선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갈수 있도록.
5. 상주에 계신 어머니의 쾌유를 위해서..
6. 시온이의 형가리에서의 3학년 학습기간에 주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